



질문을 바꾸는
섹슈얼리티 **포
나
세**

들어가며

질문을 바꾸는 섹슈얼리티 워크북 소개	3
질문을 바꾸는 섹슈얼리티 강의	4
워크북, 이렇게 활용해요!	5

1장 주체

섹슈얼리티, 교차성 관점으로 이해 넓히기	8
워크숍 내가 통과한 벽이지만 다른 사람은 통과하지 못한 벽	9
여성의 몸, 다양한 선택지 갖기	14
워크숍 다르게 보는 나의 몸	15

2장 관계

연애 각본 새로 쓰기	22
워크숍 연애 굴리기	23
섹스의 조건 구성하기	28
워크숍 내가 원하는 섹스	29

3장 사회

페미니즘 관점에서 시민권 다시 보기	36
워크숍 나도 시민이거든요?	37
비혼으로 살아가기	42
워크숍 비혼 그리기	43

들어가며

1. 질문을 바꾸는 섹슈얼리티 워크북 소개

질문을 바꾸는 섹슈얼리티 워크북은 한국성폭력상담소 주최로 2018년 6월부터 8월까지 진행되었던 ‘질문을 바꾸는 섹슈얼리티 강의’의 강의와 워크숍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워크북은 섹슈얼리티 경험과 고민을 이야기 나누는 워크숍이 학교, 단체, 모임 등의 일상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시하고, 해당 주제에 대한 젠더 감수성이 확장 되도록 기획되었습니다. 이 워크북은 여성주의 워크숍이나 대화 모임을 진행하고자 하는 진행자나 기획자가 참조할 수 있습니다.

‘섹슈얼리티’는 “성역할, 성행위, 성적 감수성, 성적 지향, 성적 환상과 정체성을 정의하고 생산하는 모든 영역”을 의미하는 폭넓은 개념입니다.* 또한 하나의 관점처럼, 사적인 문제가 어떻게 정치적인 문제인지, 공적 영역은 성적인 것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설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번 워크북에서는 개인의 일상부터 사회의 법과 제도를 아우르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워크북은 크게 세 가지 장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1장 ‘주체’에서는 ‘교차성’과 ‘몸’을 다룹니다. 이를 통해 교차적 경험과 존재간의 연대에 대해서, 여성 몸의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장 ‘관계’에서는 ‘연애’와 ‘섹스’에 대해 다룹니다. 이를 통해 평등한 관계와 서로 건강하게 의존하는 개인을 상상해보고자 하였습니다. 3장 ‘사회’에서는 시민권과 비혼에 대해 다룹니다. 국가와 사회제도가 우리의 섹슈얼리티를 어떻게 틀 짓고 규제하는지 이야기 꺼낼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 동안의 강의는 매회 다른 주제, 다른 강사분과 진행되었지만, 각각의 이슈를 관통하는 규범과 규범을 균열내기 위한 실천은 모두 연결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서로 다른 주제가 개별적인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강의 및 워크숍을 진행하는 동안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성적 주제에 대해 즐겁고 편안하게 대화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는 모습은 놀라웠습니다. 섹슈얼리티에 대해 질문하고 변화를 생각해 보는 것은 개인의 자유와 존엄을 찾아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답게 이야기할 수 있고 여성주의 감수성이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공간이 많이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 『페미니즘의 개념들』,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엮음, 동녘, 2015, 162p

2. 질문을 바꾸는 섹슈얼리티 강의



‘질문을 바꾸는 섹슈얼리티 강의’는 섹슈얼리티 담론과 경험에 대한 주제들을 여성주의 언어로 학습하고 생산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강의 후 진행되었던 워크숍을 통해서 스스로 말하고 서로 대화하면서 경험을 능동적으로 해석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1강-섹슈얼리티, 교차성 페미니즘으로 이해 넓히기>는 장애여성공감의 귀어활동가 나영정님께서, <2강-여성의 몸, 다양한 선택지 갖기>는 서강대 김백애라님께서, <3강-연애 각본 새로 쓰기>는 성공회대 실천여성학과 김순남님께서, <4강-섹스의 조건 구성하기>는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의 한채윤님께서, <5강-페미니즘 관점에서 시민권 다시 보기>는 젠더학 연구자 유화정님께서, <6강-비혼으로 살아가기>는 전주 비혼여성공동체 비비의 김란이님께서 진행해주셨습니다. 여섯 개의 강의 내용은 워크숍 주제 설명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워크숍은 열 한 명의 기획단 ‘페미니스트 퍼실리테이터’와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기획단은 총 7회의 사전 회의를 통해 워크숍 활동을 기획하고, 워크숍 당일 촉진활동(facilitate)을 통해 참가자들이 스스로 말하고 생각을 모으고 실천을 모색할 수 있도록 활동하였습니다. 본 워크북의 워크숍 활동은 기획단의 기획 및 피드백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강의 및 워크숍 후기가 본 워크북의 QR코드로 매 주제별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될 자료>와 함께 실려있습니다.

3. 워크북, 이렇게 활용해요!

- ① 이 워크북은 공동작업을 전제로, 워크숍 기획자와 진행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다만, 상황이 되지 않는다면 개인이 혼자서 작업해볼 수 있습니다.
- ② 소규모 그룹(6인 이하)으로 활동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다수가 참여할 때는 모둠을 나눠서 충분히 토론할 수 있도록 합니다.
- ③ 워크숍 시작 전에 참가자들과 활동 약속을 함께 정하고 지킬 수 있도록 합니다.
- ④ ‘질문을 바꾸는 섹슈얼리티 강의’에서는 워크숍 활동 전에 1시간 40분 동안 강의를 진행되었습니다. 주제 및 핵심 용어에 대한 기본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글을 읽거나, 영화 등의 시청각자료를 보는 것도 좋습니다.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최소한의 공통된 이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진행자의 역할

- ① 진행자는 질문하고 참가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고 워크숍의 흐름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 ② 워크숍 진행안은 상황에 따라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③ 워크숍 활동 동안 누군가 발언을 독점하거나 소외되지 않고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합니다.
- ④ 작업하기 전에 참가자들이 개별적으로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 ⑤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혐오, 차별 발언이 나왔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응대할 수 있습니다.

혐오, 차별 발언에 대응하기

- ① 어떤 의미/의도인지 되묻기
- ‘문제단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② 대안 제시하기
- 오해/불편할 수 있는 말같은데, 말씀하신 의미라면 (대안적인 단어)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요?
- ③ ‘차별’, ‘혐오’, ‘폭력’이라고 직접적으로 문제 규정하기

모두의 약속

본격적인 활동을 하기 전에 구성원간 지켜야 할 약속을 만들어주세요. 다음의 내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 ① 모두의 참여로 워크숍이 진행된다는 점을 기억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세요.
- ② 함께 워크숍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타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 ③ 다른 구성원의 이야기를 중간에 끊거나 혼자서 이야기를 독점하지 않습니다.
- ④ 워크숍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적인 이야기는 워크숍 외 공간에서 나누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참고 <한국성폭력상담소 이 공간의 약속> **

1. 우리는 나이, 상근여부, 직책, 활동기간, 지원-피지원 관계 이전에 동등한 사람이며 여성인 권운동에 참여하는 주체이다
2.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외모표현, 신체조건, 피부색, 병력, 장애, 연애와 결혼여부 및 형태, 임신출산여부 등에 관하여 '정상적, 이상적' 기준을 세워두고 판단하거나 표현하지 않는다
3. 위와 같은 다양한 사람과 함께 활동함을 인지하고 그에 맞는 의사소통을 위해 노력한다
4. 신체접촉 친숙도는 사람에 따라 매우 다르며, 나의 접촉이 상대방에게 불편할 수 있음을 유의한다
5. 차별, 배제, 혐오표현에 공동으로 대처하고, 자유롭게 문제제기하며, 제기받은 사람은 적극 시정한다
6. 모든 활동에서 구성원이 배제되지 않고 참여할 수 있도록 장소, 도구, 음식 등을 준비한다
7. 평등하고 자유로운 공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신뢰의 태도로 함께 변화해간다

** 한국성폭력상담소 '이 공간의 약속'은 상근활동가들의 논의로 마련된 이후, 상담소의 활동에서 다함께 준수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6.10.06 제정 2017.01.15 개정)

1장 주체

섹슈얼리티, 교차성 관점으로 이해 넓히기
워크숍 내가 통과한 벽이지만 다른 사람은 통과하지 못한 벽

여성의 몸, 다양한 선택지 갖기
워크숍 다르게 보는 나의 몸

섹슈얼리티, 교차성 관점으로 이해 넓히기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교차성’이 화두입니다. 교차성(intersectionality)은 흑인남성의 경험으로 대표되는 인종차별로도, 백인여성의 경험으로 대표되는 성차별로도 설명할 수 없는 흑인여성의 차별 경험을 설명하기 위해 킴벌리 크렌쇼라는 페미니스트 이론가가 제안한 개념입니다.* 그 이후 흑인여성의 경험뿐만 아니라 소수자가 경험하는 복합적인 차별 구조를 설명하는 언어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섹슈얼리티강의 1강(2018.06.21) 나영정님은 교차성이 성주류화 정책의 수단이기도 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정책언어로서의 교차성을 설명합니다.** “최근의 사례를 보면, 2018년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는 한국에 차별금지법 채택을 권고하며 그 법안의 성격을 “여성에 대한 직간접 차별 및 빈곤 여성, 소수 인종 종교 그룹 및 성적 소수자에 속하는 여성, 장애여성, 난민 및 난민 신청 여성, 무국적 및 이주 여성, 농촌 여성, 비혼 여성, 청소년, 여성 노인과 같은 소외 계층에 영향을 미치는 교차적인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교차성은 어떤 개인에게는 자신의 삶을 조각내지 않고 담아낼 수 있는 언어이지만, 어떤 개인에게는 자신의 고유한 억압이나 차별을 설명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킴벌리 크렌쇼가 비유했듯이 우리의 현실이 교차로에 서있는 것과 같다면, 차별이나 억압은 단 하나의 힘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복잡한 현실을 복잡한 그대로 이야기하는 일은 단순화하는 것보다 어렵고 더 많은 공력을 기울여야 하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여성이 ‘성차별’이라는 언어를 얻기 이전으로 돌아가기 어렵듯 말입니다.

사라 아메드는 ‘망치들의 친화력(an affinity of hammers)’***이라는 글에서 소수자가 겪는 차별, 혐오, 폭력을 ‘벽’으로, 그 벽을 깎아내리기 위한 저항을 ‘망치질’로 비유합니다. 사람들이 경험하는 벽은 같지 않아서, 자신이 통과한 벽에 다른 사람은 가로막히기도 합니다. 사라 아메드는 소수자들이 벽을 향해 망치질(저항)을 하는 가운데 다른 소수자의 망치질을 발견하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규범과 제도에 함께 저항하는 ‘망치들의 친화력’

* 킴벌리 크렌쇼(1989), “인종과 성의 교차점 탈주변화하기: 반차별 독트린, 페미니즘 이론, 반인종주의 정치에 대한 흑인 페미니즘의 비판”, 번역 서교연 웹진 인-무브(<http://en-movement.net>, 검색일 2018.11.24.)

** 다음의 글 참고. 류민희(2015), “해의 성주류화 정책과 반차별 정책: 교차성을 중심으로”, ‘성평등 정책, 이론, 운동의 방향과 미래’ 토론회(2015, 11, 27) 자료집 43-57p

*** 사라 아메드(2016), “망치들의 친화력”, 퀴어페미니스트매거진 펄 2017 특별판 쓰까페미

을 연대의 모델로 제안합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벽’과 ‘망치’가 무엇인지 빈 칸을 채우며 내가 감지하지 못했지만 다른 사람은 받고 있는 차별, 혐오, 폭력을 이해하는 활동을 해보고자 합니다. 나아가 억압의 구조가 연결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함께 벽을 깎아내리는 연대를 모색하는 시간입니다.

워크숍 내가 통과한 벽이지만 다른 사람은 통과하지 못한 벽

활동설명 벽과 망치에 해당 하는 사례를 워크시트에 적고 자유롭게 마인드맵을 그리며 이야기 나눕니다. 워크시트에 표시된 다섯 가지 이상 적어도 괜찮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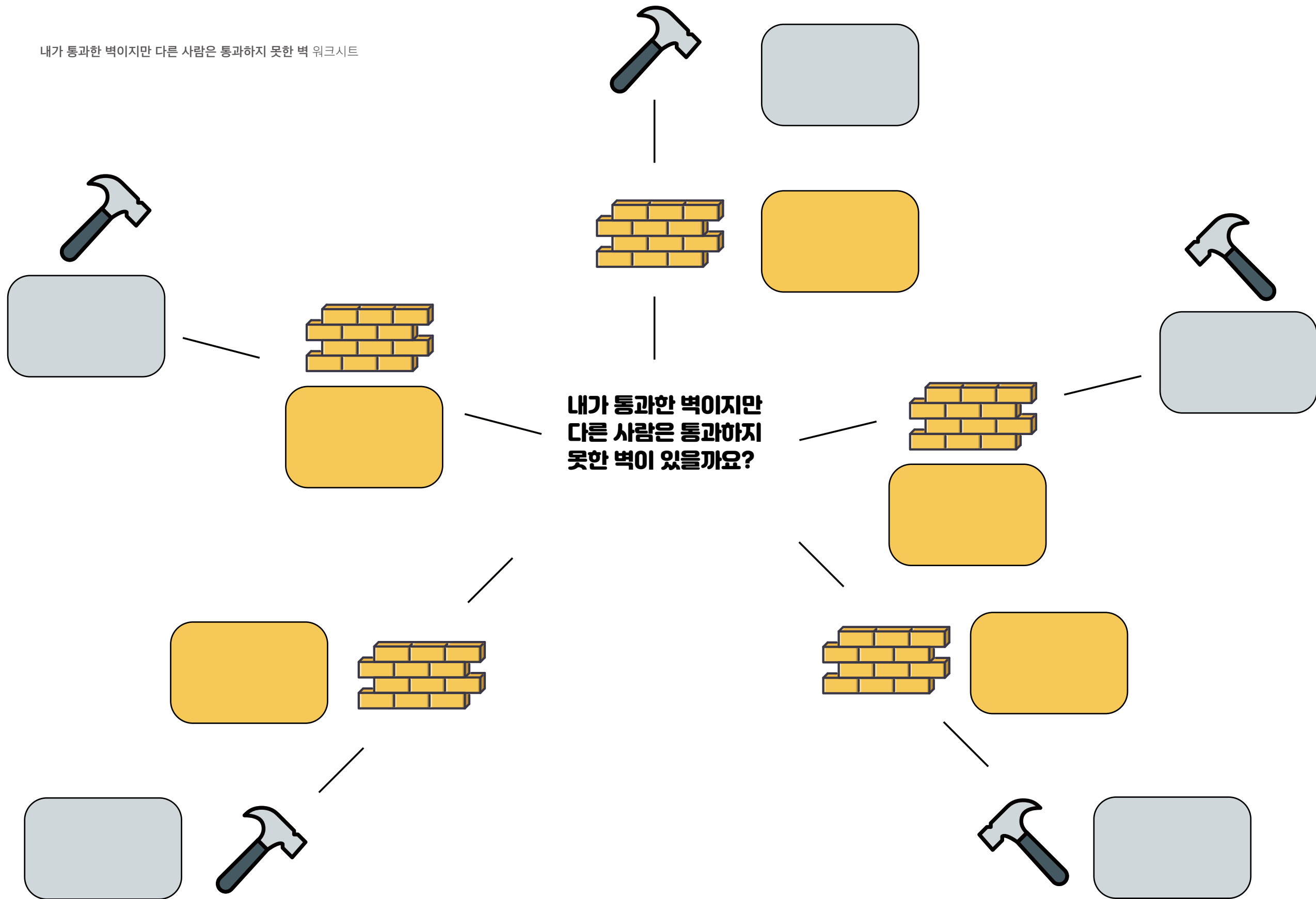
준비물 워크시트, 펜, 크레파스, 사인펜, 색연필 등 꾸미기 재료

소요 시간 90분

진행일개

구분	내용	진행
열기 (15)	워크숍 소개 자기소개와 신청동기 나누기 참가자의 약속 정하기 역할 나누기	오늘의 활동을 소개하고 돌아가며 자기소개와 함께 오늘의 기대나 참여동기를 나눕니다. 워크숍 활동에 필요한 기본적인 약속을 정한 후 활동을 시작합니다. 기록이 필요한 경우, 기록을 담당할 사람을 정할 수 있습니다.
전개 (70)	1. 내가 통과했지만 다른 사람이 부딪힌 벽은 무엇인지 적어보세요. (벽 1~5)	<벽 1~5>를 적은 후, 1) 다른 사람은 그 벽을 어떻게 경험했는지, 2) 내가 마주한 벽과 다른 사람이 마주하고 있는 벽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야기해봅니다.
	2. 벽에 가로 막히지 않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망치 1~5)	망치는 벽을 무너뜨리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망치 1~5>를 적은 후, 다른 사람이 마주하는 벽을 이해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적어봅니다. 이를 통해 각자의 실천 약속을 만들고 공유합니다.
마무리 (5)	워크숍 종료	오늘 워크숍을 통해 내가 새롭게 알게된 것, 인상 깊게 남은 것을 함께 나눕니다.

내가 통과한 벽이지만 다른 사람은 통과하지 못한 벽 워크시트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될 자료

책

『공간 침입자』 너털 퓨워, 김미덕 옮김, 현실문화, 2017

『교차성X페미니즘』 한우리 외 지음, 여성문화이론연구소, 2018

『수신확인, 차별이 내게로 왔다』 인권운동사랑방 엮음, 오월의봄, 2013

『퀴어페미니스트매거진 펄 2017 특별판 쓰까페미』 언니네트워크, 2017

『흑인페미니즘 사상』 페트리샤 힐 콜린스 지음, 박미선 외 옮김, 여성문화이론연구소, 2009

논문

김벌리 크렌쇼(1989). 인종과 성의 교차점 탈주변화하기: 반차별 독트린, 페미니즘 이론, 반인종주의 정치에 대한 흑인 페미니즘의 비판, 번역 서교연 웹진 인-무브(<http://en-movement.net>, 검색일 2018.11.24.)

위크숍 신청하기 [QR코드]



여성의 몸, 다양한 선택지 갖기

‘여자다운 몸’은 여성다움을 규정하는 규범들(아름다워야 한다, 남성을 사랑해야 한다 등)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한국사회에서 여자다운 몸은 어떤 몸인가요? 쉽게 떠올릴 수 있듯이, 마르고 작고 정적이고 무기력하고 성적으로 매력적인 몸일 것입니다. 그런 몸은 사회적으로 아름답다고 인식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자기다움을 잃거나 완벽하게 재현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신과 끊임없이 불화하는 몸이기도 합니다. 여자다운 몸으로 살아가는 것은 한 인간이 가진 몸의 능력과 움직임에 일부만 의도하지 않는 한계를 설정하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여성에 대한 규범은 몸에 각인됩니다. 초중고교 체육시간을 떠올려 볼까요? 남학생과 여학생이 하나의 운동장을 사용할 때, 큰 운동장의 대부분은 남학생들의 공간이 되고, 여학생들은 한켠에서 수업을 하거나, 벤치에 앉아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았습니다. 축구나 야구처럼 땀 흘리고 몸을 부딪히면서 뛰는 일은 여학생들의 것이 아니라는 분위기가 공기처럼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를 보호하라/위험에 대비하라’와 같이 성폭력에 대한 공포 담론 역시 여성에게 통제적인 효과를 발생시킵니다. 여성이 혼자서 다니지 않도록, 어떤 장소에 가지 않도록, 밤에 돌아다니지 않도록, 옷을 검열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성에 대한 규범은 몸을 통해 균열이 나고 부서지기도 합니다. 자기방어훈련을 통해 폭력에 대응하는 몸을 만드는 것, 다이어트를 하지 않는 것, 화장을 하지 않는 것 등은 몸에 대한 미시적인 통제에 맞서는 실천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실천들이 곧 강한 몸, 유능한 몸, 건강한 몸을 만들어야 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화장하지 않는 얼굴과 짧게 자른 머리만이 해방된 몸이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통제되어온 몸의 역사를 다시 읽고 다양한 몸/움직임의 경험을 해보는 과정을 통해 몸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늘리는 일입니다. 살아가면서 어떤 몸으로 살아갈지, 어떻게 행동하고 움직이고 표현할지를 스스로 선택하자는 것입니다.

이번 활동에서는 대상화된 시선 때문에 가려져 있거나 스스로 알아차리지 못했던 내 몸의 장점, 좋아하는 점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나의 몸을 자랑해보세요. 마음속에 갈등이 있다면 그 갈등 자체가 논의의 주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보살펴주지 못했던 몸에

* 질문을 바꾸는 섹슈얼리티 강의 두 번째 강의(강사 김백애라) 중(2018.07.05)

위로와 격려를 보내주세요. 누구도 대상화하지 않는 곳에서, 나의 몸에 대한 가부장적, 이성애 중심적 시선을 뒤로하고 한 인간의 몸으로 다시 만나본다면 좋겠습니다.

워크숍 다르게 보는 나의 몸

활동 내용 워크시트를 마음껏 꾸미고 그려주세요. 단, 다른 구성원의 이야기에 대해 선부른 평가, 조언, 공감은 하지 않습니다. 내 기준과 다른 사람의 기준과 몸을 느끼는 방식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유념한다면 더 즐거운 활동을 할 수 있어요!

준비물 워크시트 1, 2, 펜, 크레파스, 사인펜, 색연필 등 꾸미기 재료

소요 시간 90분

진행일개

구분	내용	진행
열기 (15)	워크숍 소개 자기소개와 신청동기 나누기 참가자의 약속 정하기 역할 나누기	오늘의 활동을 소개하고 돌아가며 자기소개와 함께 오늘의 기대나 참여동기를 나눕니다. 워크숍 활동에 필요한 기본적인 약속을 정한 후 활동을 시작합니다. 기록이 필요한 경우, 기록을 담당할 사람을 정할 수 있습니다.
전개 (70)	<활동1> 천하제일 다양한 몸 뽐내기 나는 __할 때 __다 내 __은/는 __다 나는 __해도 __다 나는 __한 __을/를 갖고 있다 나의 __을/를 부러워하라	컨셉은 ‘자랑’입니다! 진행자는 참가자들에게 최대한 거만하고 허세스럽게 뽐내달라고 주문해주세요. 신체부위만이 아니라 몸의 자세, 신체기능, 몸으로 잘하는 일 등도 좋습니다. 예_기타치는 손, 큰 목소리, 브래지어 안 한 가슴, 건강한 피, 지구력 충만한 다리, 깨끗한 흰자, 식사 후 바로 누워도 괜찮은 위장
	<활동2> 지금도 괜찮아. 부동부동하고 싶은 나의 몸	그동안 사회적으로 부정적으로 평가되거나 쓸모없다고 여겨져온 몸을 위로하는 시간입니다. 내심 갈등이 있어서 1번에 적지 못한 내용을 요람 안에 적어 넣어도 좋습니다.
마무리 (5)	워크숍 종료	오늘 워크숍을 통해 내가 새롭게 알게된 것, 인상 깊게 남은 것을 함께 나눕니다.

나는

할 때

다

내

은/는

다

나는

해도

다

나는

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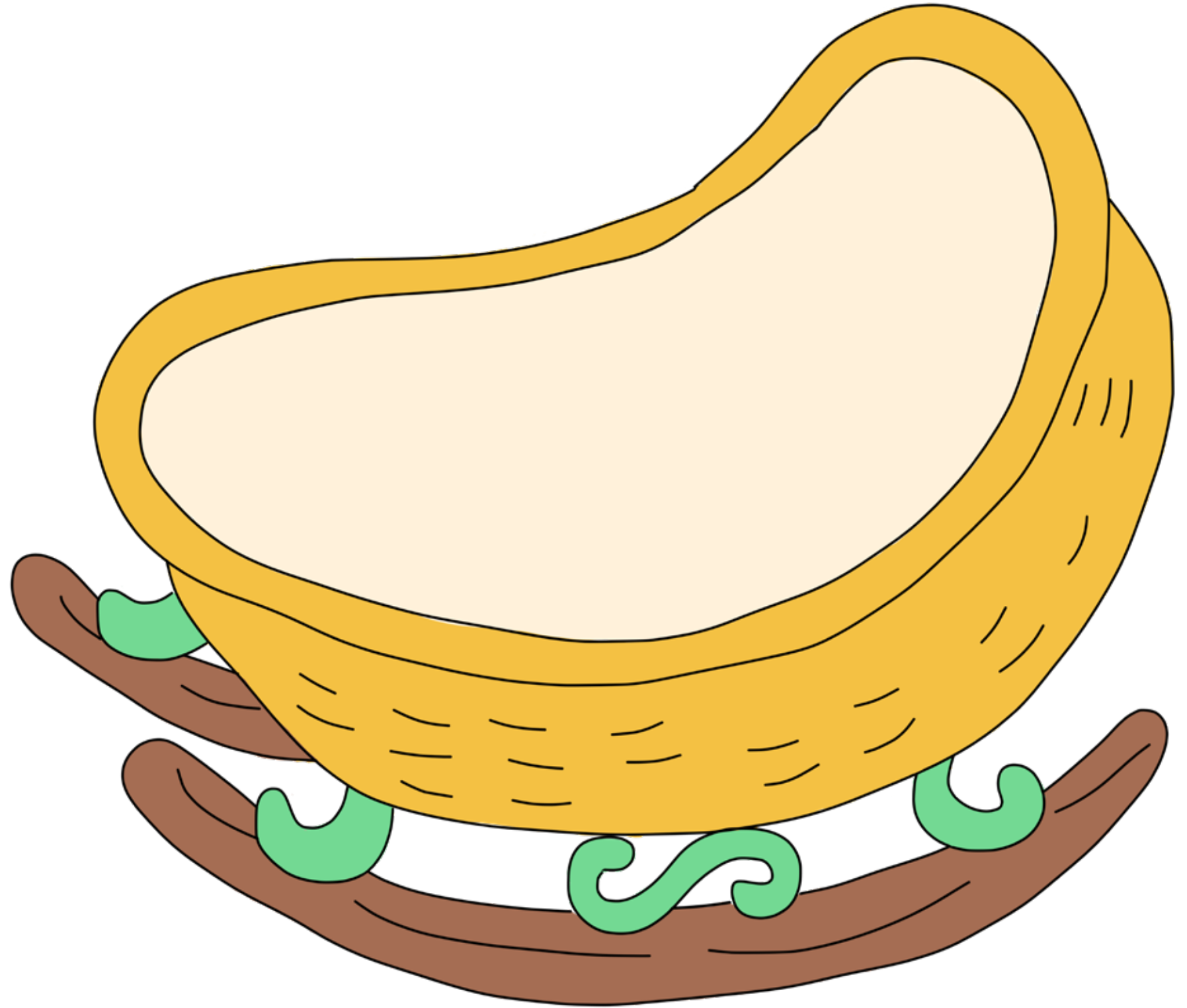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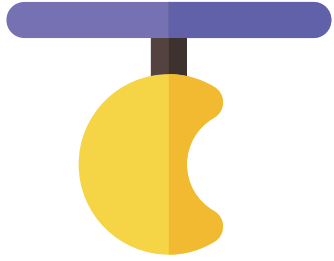
을/를 갖고 있다

나의

을/를

부러워하라! 

지금도 괜찮아.
부둥부둥 하고 싶은 나의 몸은?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될 자료

책

『거부당한 몸』 수전 웬델 지음, 강진경 외 옮김, 그린비, 2013

『외비우스 띠로서의 몸』 엘리자베스 그로츠 지음, 임옥희 옮김, 여성이론문화연구소, 2001

『무엇이 아름다움을 강요하는가』 나오미 울프 지음, 윤길순 옮김, 김영사, 2016

『미녀, 야수에 맞서다』 엘렌 스노틀랜드 지음,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연구소 올림 옮김, 사회평론아카데미, 2016

『어쩌면 이상한 몸』 장애여성공감 지음, 오월의봄, 2018

『여성의 몸, 어떻게 읽을 것인가』 케티 콘보이 외 지음, 윤희녕 외 옮김, 한울, 2001

『여성주의자기방어훈련 매뉴얼: 난다 똘다 다른 몸』 한국성폭력상담소, 2016

『우리 몸 우리 자신』 보스턴여성건강서공동체 지음, 또문몸살림터 옮김, 또하나의문화, 2005

『똥똥해서 죄송합니다』 한국여성민우회 지음, 후마니타스, 2013

『형거: 몸과 허기에 관한 고백』 록산 게이 지음, 노지향 옮김, 사이행성, 2018

워크숍 신청하기 [QR코드]



2장 관계

연애 각본 새로 쓰기

워크숍 연애 굴리기

섹스의 조건 구성하기

워크숍 내가 원하는 섹스

연애 각본 새로 쓰기

우리는 연애를 개인의 자아와 긴밀하게 연관 짓고, 능력의 문제로 이해하는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연애문제를 다루는 프로그램이나 책도 많고 친구들 사이에서의 연애를 화두로 하여 일상적인 대화도 많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재생산되는 ‘연애 각본’에 대해서는 의문이 따릅니다. 왜 각종 드라마나 영화에서 재현되는 여성 캐릭터는 늘 로맨스의 주인공으로 그려지는지, 여성의 삶에 연애가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 되물게 됩니다. 성소수자의 연애담을 진지하게 그린 재현물은 찾아보기 어려운 반면, 성소수자는 과잉 성애화된 존재로 재현됩니다. 청소년의 연애는 ‘성인’이 되고 나서 해야 하는 일탈적인 일로, 장애인의 연애는 있을 수 없는 일로 여겨집니다. 남성, 비장애, 성인, 이성애 중심 연애 문화에서 소수자들의 경험은 왜곡되어 드러납니다.

정형화된 연애 각본을 이루고 있는 것은 이 사회의 ‘정상적인 삶’을 구조화하는 규범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성은 남성을 사랑하고 남성은 여성을 사랑한다는 이성애 중심적 공식, 여성다움과 남성다움을 결정하는 성별이분법, 한 개인의 가치를 평가하고 매칭하는 자본주의적 방식, 성별화된 돌봄, 연애관계를 유지하는 가부장적 관습 등이 그렇습니다. 친밀한 관계에서 여성/연소자는 남성/연장자의 소유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다른 연애를 모색하는 이유는, 연애 각본에 대해 스스로가 느끼는 불편함을 인정하면서도 대안적인 관계에 대한 욕망을 실현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랑, 신뢰, 헌신, 배려 등의 친밀한 관계를 구성하는 감정이 발생하고 의미화되는 방식에 의문을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장면에서 로맨틱함, 신뢰와 헌신, 친밀함을 느끼는지, 감정이 만들어지는 방식은 앞서 언급했던 규범적인 가치판단이 개입된 형태로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남성이 어떤 일을 하면 든든하다고 느끼거나 또는 낭만적이라고 느끼는 것, 여성이 어떤 행위가 사랑스러움과 연결되는 방식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다른 연애에 대한 질문은 세상과 타인에 대한 다른 관점을 견지하는 일과 함께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사회적 규범과 당위, 페미니즘, 나의 경험과 욕망 등과 관련하여 ‘연애’를 다각도로 바라보고 사고하며 ‘다른 각본’을 찾아보기 위한 활동입니다. 스스로 연애를 하고 싶은지, 어떤 관계망 안에서 자존감을 확립하고 자신을 확인하고 살아갈 것인지, 내가 나누고 싶은 사랑은 어떤 형태인지 질문하며 찾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 질문을 바꾸는 섹슈얼리티 강의 세 번째 강의(강사 김순남) 중 (2018.07.26)

워크숍 연애 굴리기

활동설명 연애와 관련한 사회적 통념, 주변의 시선, 나 자신의 욕망을 칸칸이 순서대로 적어가며 다른 연애각본의 단초를 구성해가는 활동입니다. 개인의 경험에 기초해 이야기하게 되기 때문에 서로의 경험을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 이성애중심적인 ‘남자친구’, ‘여자친구’라는 말 보다는 ‘애인’으로 이야기 해봅시다.

* 관련하여 드라마, 책, 만화 등도 같이 이야기해볼 수 있어요.

준비물 색깔 다른 포스트잇 두 가지, 전지, 매직, 크레파스

소요시간 90분

진행일개

	내용	진행
열기 (15)	워크숍 소개 자기소개와 신청동기 나누기 참가자의 약속 정하기 역할 나누기	오늘의 활동을 소개하고 돌아가며 자기소개와 함께 오늘의 기대나 참여동기를 나눕니다. 워크숍 활동에 필요한 기본적인 약속을 정한 후 활동을 시작합니다. 기록이 필요한 경우, 기록을 담당할 사람을 정할 수 있습니다.
전개 (70)	1. ‘연애’와 관련된 사회적 통념을 적어봅니다.	가부장제, 이성애중심주의, 자본주의 등의 사회적 규범과 연애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비판적으로 검토합니다.
	2. ‘연애’와 관련하여 타인이 나에게 바라는 것을 적어봅니다.	사회적 통념은 또래, 부모 등 주변 관계를 통해 강화됩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했던 말, 암묵적으로 또는 명시적으로 나에게 바랐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이야기해 봅니다.
	3. ‘연애’와 관련해 내가 원하는 것을 적어봅니다.	내가 원하는 친밀한/로맨틱한/성애적 관계는 무엇인지 적으며 나답게 존재하고 관계 맺는 연애를 탐색해 봅니다.
마무리 (5)	워크숍 종료	오늘 워크숍을 통해 내가 새롭게 알게 된 것, 인상 깊게 남은 것을 함께 나눕니다.

--	--	--	--	--	--	--	--

**나답게 존재하고
관계맺기**

**내가
원하는 것**



**타인이
바라는 것**



사회적 통념

--	--	--	--	--	--	--

시작 >>>

* 화살표를 따라 한 칸씩 적어가 보세요.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될 자료

책

『보스턴 결혼』 에스터 D. 로스블럼 외 지음, 알.알.웁김, 이매진, 2012

『사랑은 왜 아픈가』 에바 일루즈 지음, 김희상 옮김, 돌베개, 2013

『사랑은 지독한 그러나 너무나 정상적인 혼란』 울리히 벡 외 지음, 강수영 외 옮김, 새물결, 2002

『섹슈얼리티 강의, 두 번째』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연구소 올림, 동녘, 2006

『연애와 사랑에 대한 십대들의 이야기』 십대섹슈얼리티인권모임 지음, 바다출판사, 2016

『이토록 두려운 사랑』 김신현경 지음, 줌마네 기획, 반비, 2018

논문

김지혜 (2014). TV 드라마에 나타난 연애 각본의 변형과 젠더/섹슈얼리티 재현에 대한 연구. 젠더와 문화, 7(2), 7-40

위크숍 사전보기 [QR코드]



섹스의 조건 구성하기

미투(metoo)운동이 촉발된 2018년 한국사회에서는 수많은 여성들이 광장에서 “강간문화를 철폐하라”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강간문화는 피해자의 경험과 관점은 지운 채 성폭력을 로맨스나 무용담으로 해석하는 남성중심적 문화를 말합니다. 많은 성폭력 가해자들은 그 문화 위에서 성폭력을 ‘사랑이었다’, ‘합의된 성관계였다’라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합의하지 않은 섹스는 강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내가 원하는 섹스는 어떤 것인지 고민하거나 이야기할 기회는 적습니다.

2016년 캐나다 온타리오 법원은 데이트 관계에 있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어난 성폭력 사건에 대해 의미있는 판결을 내립니다. 판결문은 ‘합의’의 최소한의 정의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 최소한의 조건에서 성적행위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은 상대방이 적극적이고 의식적이고 자발적으로 합의를 이루었다는 것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a) 성적 행위에 대하여 자유롭게 동의한 것을 뜻함. b) 언어적 혹은 물리적 저항이 없었음. 위협 또는 힘의 사용에 굴복한 것은 동의라고 볼 수 없음. c) 상대방의 옷차림은 동의의 의사표현이 아님. d) 과거의 성적 행위에 대한 동의는 미래의 성적 행위에 대한 동의가 아님. e) 한 사람과 성적 행위를 하기로 동의한 것은 다른 사람과 성적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동의가 아님. f) 개인은 언제든지 동의를 철회할 수 있음. g) 개인이 그 행위의 성격을 이해할 수 없거나, 정황 상 의식적인 동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성적 행위에 대해 동의가 있다고 할 수 없음

사람마다 성적 친밀감이 만들어지는 시간, 느낌이나 스킨십에 대한 기대는 같지 않습니다. 단지 섹스하기 전에 ‘섹스하고 싶냐’고 물었다고 해서 서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은 의사소통이 실패하는 지름길입니다. 모든 성적 행위에 대해, 감정과 신뢰와 친밀감에 대해, 상대방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에 대해, 끊임없이 대화 나누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은 욕망을 지연시키거나 누군가에게 맞추는 번거로운 과정이 아니라, 상대방과 자신의 불편함, 욕망, 쾌락 등을 존중하고 알아가는 성적 대화의 과정입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섹스의 조건을 구성해보고자 합니다. 이 활동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것과 성적 의사소통의 과정을 구체화해보는 일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찾아볼 때 단지 본능이나 욕망이라는 말에 가려진 남성중심적, 이성애중심적 섹스 각본을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 한국성폭력상담소(2017), “단 하나의 기준 적극적 합의” 캐나다 온타리오 법원(2016.07.21. 선고, 2016ONCJ448 판결) 214p

워크숍 내가 원하는 섹스

활동 설명 내가 원하는 섹스를 위해 필요한 공간과 물건, 파트너와 주고 받을 합의의 대화와 신호를 워크시트에 적어보는 활동입니다. 모든 항목을 이야기 나누지 않아도 됩니다. 공유할 수 있는 만큼 이야기 나누어 주세요.

준비물 잡지, 풀, 가위, 칼, 펜, 크레파스, 사인펜, 색연필 등 꾸미기 재료

* 콘돔, 핑거돔, 섹스토이 등이 준비되면 더 다채롭게 꾸밀 수 있어요.

소요 시간 90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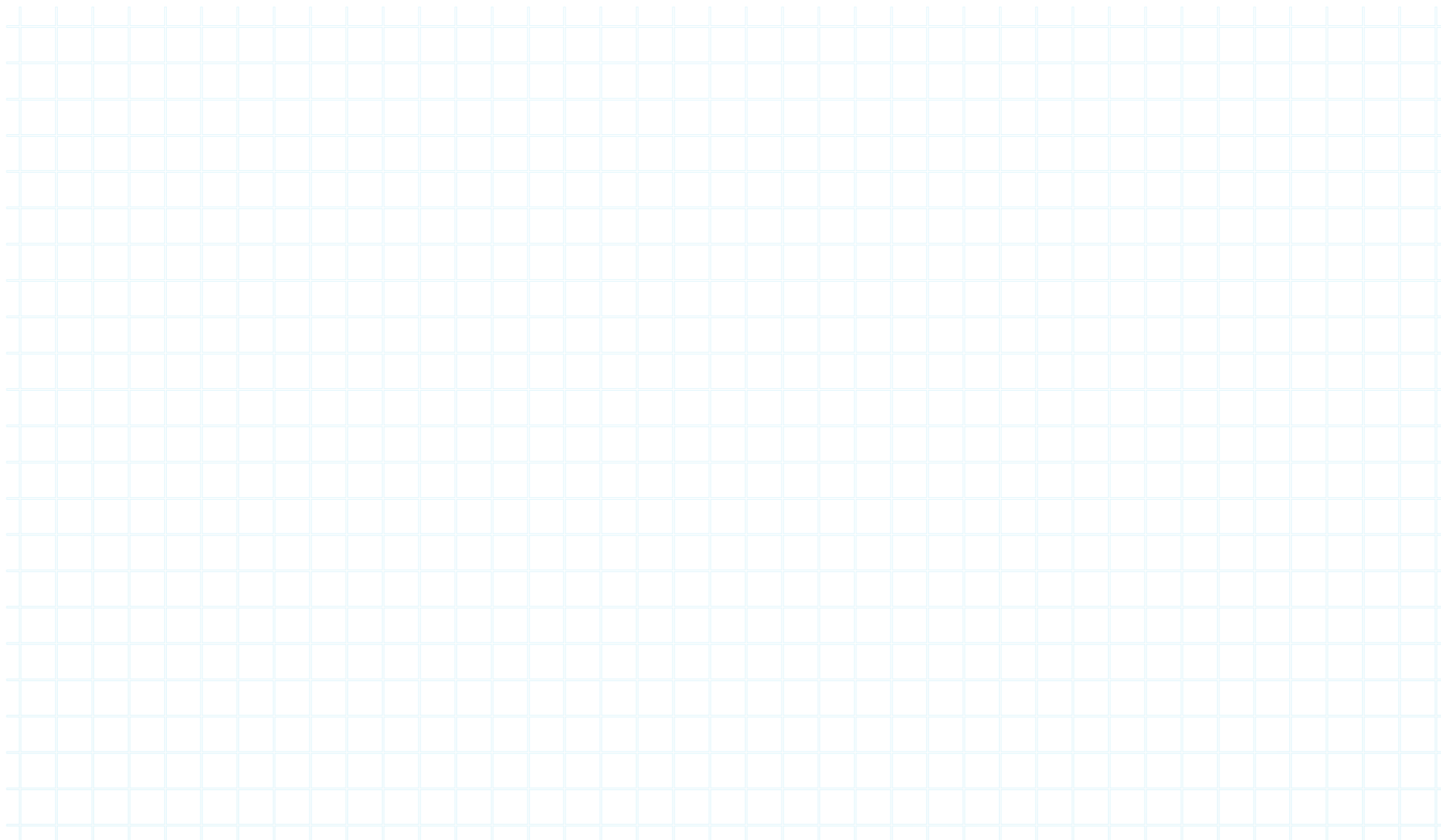
* 워크북 48페이지에 <내가 원하는 섹스를 위한 준비물> 예시가 있어요. 콜라주를 위해 준비한 잡지가 내가 원하는 공간을 채우기 충분하지 않다면 오려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진행일개

구분	내용	진행
열기 (15)	워크숍 소개 자기소개와 신청동기 나누기 참가자의 약속 정하기 역할 나누기	오늘의 활동을 소개하고 돌아가며 자기소개와 함께 오늘의 기대나 참여동기를 나눕니다. 워크숍 활동에 필요한 기본적인 약속을 정한 후 활동을 시작합니다. 기록이 필요한 경우, 기록을 담당할 사람을 정할 수 있습니다.
전개 (70)	<활동 1> 내가 원하는 섹스를 위해 필요한 물건, 공간 등을 콜라주로 채우기	예시로 프린트된 단어, 잡지, 색연필, 매직펜 등을 사용하여 작업지를 꾸며주세요.
	<활동 2> 합의의 대화와 신호 구체적으로 그려보기	상대와 섹스하는 과정에서 오갈 수 있는 대화와 신호를 구체화 해보세요. 명백한 언어 또는 상징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상대의 의사를 존중하는 합의는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을지 상상해봅시다.
마무리 (5)	워크숍 종료	오늘 워크숍을 통해 내가 새롭게 알게된 것, 인상 깊게 남은 것을 함께 나눕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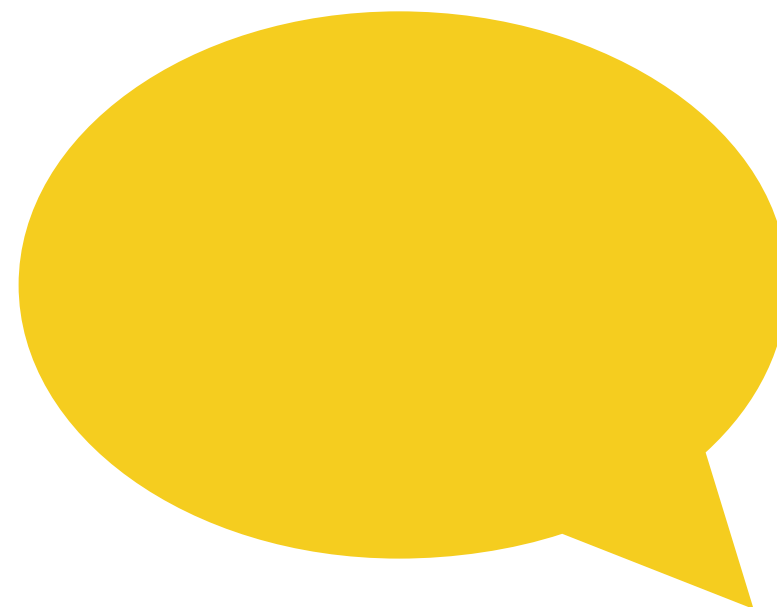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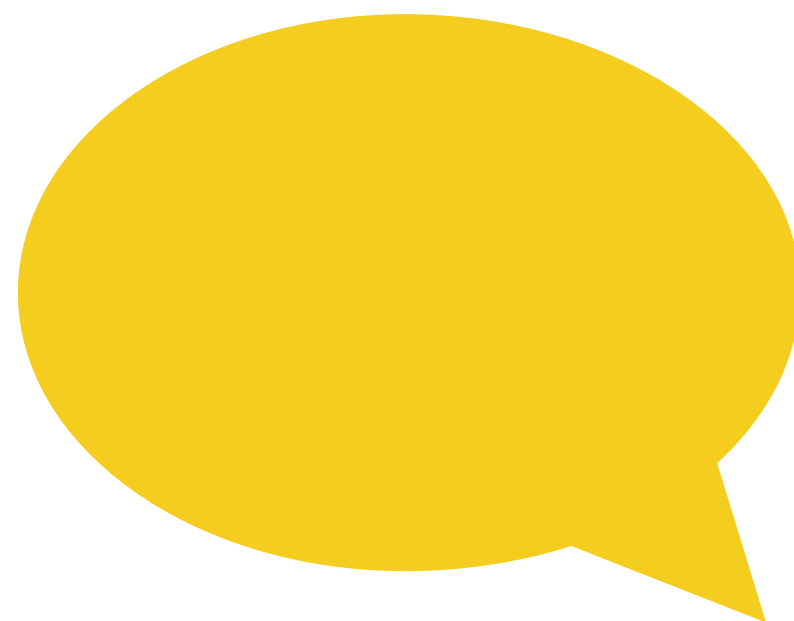
내가 원하는 섹스

콜라주로 내가 원하는 섹스를 위한 공간을 만들어 봅니다.



내가 원하는 섹스

합의의 대화와 신호를 말풍선 안에 채워봅니다.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될 자료

책

『그것은 썸도 데이트도 섹스도 아니다』 로빈 월쇼 지음,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연구소 울림 옮김, 일다, 2015

『단 하나의 기준 적극적 합의』 캐나다 온타리오 법원(2016.07.21. 선고, 2016ONCJ448 판결), 한국성폭력상담소 옮김, 2017

『이기적 섹스』 은하선 지음, 동녘, 2015

『한채윤의 섹스 말하기』 한채윤 지음, 해울, 2000

워크숍 사전보기 [QR코드]



3장 사회

페미니즘 관점에서 시민권 다시 보기
워크숍 나도 시민이거든요?

비혼으로 살아가기
워크숍 비혼 그리기

페미니즘 관점에서 시민권 다시 보기

시민권(citizenship)은 국가가 정한 시민의 범주 및 자격을 의미합니다. 시민권은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와 개인 사이에 위계가 있어서 수동적으로 부여받는 성격의 멤버십 또한 아닙니다. 국가는 개인들과 계약을 맺고 있다는 기본적인 전제 위에서 시민권이라는 개념도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국가와 시민의 관계는 누가 시민으로 인정되는지, 어떻게 인정되는지, 질문하면서 변화의 과정을 겪어왔습니다. 페미니스트들은 근대정치사상가들이 말하는 '계약'이 실은 백인 이성애자 부르주아 남성 시민만을 모델로 만들어졌으며,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면 여성에게도 시민으로서의 참정권을 비롯한 정치적 권리, 자신의 재산을 소유할 권리, 동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이 있어야 한다고 문제제기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가 여성 시민을 오직 가정 안의 존재, 모성 역할을 수행하는 존재로만 보는 관점, 성소수자 시민들은 가족구성권에서 배제하는 문제 등 가부장적이고 이성애중심적인 규범에 근거해 특정 시민들을 차별하고 선별적으로 보호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제기 해왔습니다. 변화도 있었습니다. 한때 성폭력 범죄 처벌의 근거 법령은 '정조에 관한 죄' 였지만, 성폭력범죄에서의 보호법익을 '정조'로 간주하는 가부장적 법체계에 문제제기한 결과, 1995년 '강간과 추행의 죄'로 바뀌기도 하였습니다.

여전히 개인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문제를 공적 의제로 만들고, 불평등과 차별에 저항하면서, 여성과 소수자들의 시민권을 둘러싼 여러 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낙태죄 폐지 운동,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 균형법상'추행'죄 폐지 운동, 남녀동수 운동을 비롯한 여성 대표성 확대 운동, 동성혼 법제화를 비롯한 혼인평등운동 등, 여성, 소수자 시민들이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유롭게 평등하고 존엄하게 살아가기 위한 운동들입니다.

이번 활동은 시민으로서 우리 사회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한 시민으로서 나의 삶이 더 나아지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나도 시민이거든요?'에서는 '시민이 아닌 자'로 구분되고 차별받았던 경험이나 사례를 나눕니다. '이렇게 바뀌볼래요?'에서는 시민 간의 위계와 차별을 없애기 위해, 국가가 시민을 대하는 불합리한 태도에 저항하기 위해, 한 구성원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으며 살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지 이야기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바꾸는 섹슈얼리티 강의 다섯 번째 강의(강사 유화정) 중 (2018.08.09.)

워크숍 나도 시민이거든요?

활동 설명 자신이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한 것을 나누고 변화를 상상하는 토론 활동입니다.

Tip 워크숍을 시작하기 전에 “나도 시민이거든요” 크게 한 번 외치고 사기를 충전할 수도 있어요. 😊

준비물 워크시트, 펜 등 필기구

소요 시간 90분

진행일개

구분	진행안	해야할 일
열기 (15)	워크숍 소개 자기소개와 신청동기 나누기 참가자의 약속 정하기 역할 나누기	오늘의 활동을 소개하고 돌아가며 자기소개와 함께 오늘의 기대나 참여동기를 나눕니다. 워크숍 활동에 필요한 기본적인 약속을 정한 후 활동을 시작합니다. 기록이 필요한 경우, 기록을 담당할 사람을 정할 수 있습니다.
전개 (70)	1. 나도 시민이거든요?	내가 혹은 누군가가 국가로부터 차별받아서, '2등 시민', '시민이 아닌 사람', '위험한/이상한 사람', '불편을 주는 존재'로 취급 받았던 경험을 나눕니다.
	2. 이렇게 바뀌볼까요?	시민으로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으며 살아가기 위해 이 사회에 제안할 것, 그리고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적어봅니다. 크고 작고 멀고 가까운 모든 변화를 상상해봅니다. 예_ (사회) 기본소득, 화장실 물카 근절, 동거커플 제도적 인정, (개인) 일상의 공간에서 토론/학습 모임을 열고 참여한다. 소수정당을 후원한다.
마무리 (5)	워크숍 종료	오늘 워크숍을 통해 내가 새롭게 알게된 것, 인상 깊게 남은 것을 함께 나눕니다.



ooo 가 있다면/된다면/한다면	이러이러한 변화를 만들 수 있다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될 자료

책

『남과 여, 은폐된 성적 계약』 캐럴 페이트먼, 이충훈 옮김, 이후, 2001

『배틀그라운드』 백영경 외 지음, 성과재생산포럼 기획, 후마니타스, 2018

『사람, 장소, 환대』 김현경, 문학과지성사, 2015

『우리는 모두 집을 떠난다』 김현미 지음, 돌베개, 2014

『페미니즘 위대한 역사』 조앤 웰라치 스콧 지음, 공임순 외 옮김, 앨피, 2017

영화

서프러제트(2016, 사라 가브론 감독)

논문

이진옥, "문재인 정부의 젠더 정치: 탁현민과 여성의 상징적 소멸", pp.253-262. 여/성이론 통권 제37호. 2017.12

위크숍 신청하기 [QR코드]



비혼으로 살아가기

한 사람의 생애에 대한 일반적인 서사에서 개인은 부모의 보살핌 아래에서 성장하다가 청년이 되고 결혼을 통해 새로운 가족을 구성해서 원가족으로부터 독립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고 4인 가족 모델에 기반한 생활을 하다가 자녀의 돌봄을 받으며 노후를 맞이합니다. '결혼'은 이 일반적인 생애 서사의 핵심적인 이벤트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생애를 보내게 되는지 그에 대한 서사나 생애 모델은 쉽게 찾을 수 없습니다.

결혼은 법제도적으로 인정되는 형태의 가족을 구성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결혼제도는 이성애 정상가족 규범을 전제로 하여 특정 시민들은 가족구성권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어린시절부터 자연스럽게 습득한 일반적인 생애 서사는 어떤 삶들은 담아내지 못하고 있고, 불행한 삶, 고독한 삶으로 바라봅니다.

여성들이 결혼하지 않고, 정상가족을 이루지 않고 사는 삶을 선택하고자 할 때 부딪히는 벽이 있습니다. 우선 결혼할 시기를 지난 여성은 '노처녀'로 그려지고 히스테릭한 존재라는 편견에 부딪힙니다. 파트너와 함께 살고 있다면 관계를 설명하는 언어가 제한됩니다. 복지, 경제적, 경제적 지원, 돌봄이 가족을 중심으로 짜여진 사회에서 혼자서 살아가야 한다는 불안과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불안은 비혼을 생각한다면 누구나 갖고 있는 불안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여성학자 전희경은 시인 김승희의 시 '나혜석 콤플렉스'의 한 구절 "여자는 왜 자신의 집을 짓기 위하여선 항상 비명횡사를 생각해야 하는가"를 소개하며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러나 의아한 것은 어쩌서 나혜석의 죽음이나 나혜석의 삶보다 더 유명한가 하는 점이다. 나혜석처럼 살면 나혜석처럼 죽게 될까? 21세의 여성들이 그렇게 되지 않게 하려고 20세기의 나혜석이 그렇게 살았던 것이 아닐까?". 그리고 비혼은 낙오나 불행이 아니라 여성이 선택하는 합리적인 판단력의 결과라고 설명합니다.

다른 삶을 지향하는 가운데 비혼을 가족, 복지, 주거 등의 변화를 끌어내는 의제로, 운동으로 펼쳐온 역사가 있습니다. 그 맥락에서 비혼은 혼자사는 것보다 넓은 관계망을 이루며 같이 사는 삶이 됩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사회적 규범에 제한받지 않고 상상해볼

니다. 그리고 내가 그린 비혼의 삶을 살아가려면 나는 무엇을 할지, 이 사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적어보세요. 상상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실천하면서 새로운 길을 걷게 되지 않을까요!

워크숍 비혼 그리기

활동 설명 비혼을 계획해보고 내가 그리는 삶에 필요한 조건들을 구성해보는 시간입니다. 어떤 법, 제도, 관계, 주거환경, 노동환경 등이 필요한지 폭넓게 조건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 워크시트, 펜 등 필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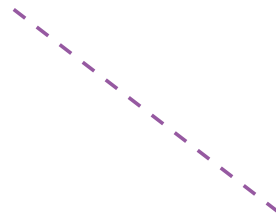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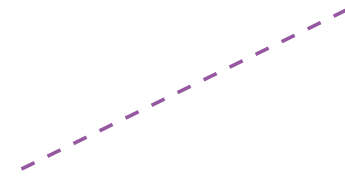
소요시간 90분

진행일개

구분	진행안	해야할 일
열기 (15)	워크숍 소개 자기소개와 신청동기 나누기 참가자의 약속 정하기 역할 나누기	오늘의 활동을 소개하고 돌아가며 자기소개와 함께 오늘의 기대나 참여동기를 나눕니다. 워크숍 활동에 필요한 기본적인 약속을 정한 후 활동을 시작합니다. 기록이 필요한 경우, 기록을 담당할 사람을 정할 수 있습니다.
전개 (70)	1. 내가 그리는 비혼	비혼 실천을 생각하는 나, 넓은 생애 전망 속에서 내가 어떤 삶을 원하는지, 누구와 어떻게 살고 싶은지 질문하고 공유합니다.
	2. 비혼으로 살아가려면	한 개인이 비혼으로 불편한 시선 없이, 차별 받지 않고 충분한 삶을 보장받으며 살아가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빈 상자 안에 적어 넣고 공유합니다.
마무리 (5)	워크숍 종료	오늘 워크숍을 통해 내가 새롭게 알게 된 것, 인상 깊게 남은 것을 함께 나눕니다.

내가 그리는 비혼

비혼으로 살아가려면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될 자료



책

『마흔 이후, 누구와 살 것인가: 세 여자의 유쾌한 실험, 그 10년의 기록』 캐런, 루이즈, 진 지음, 안진희 옮김, 심플라이프, 2014

『비혼여성 1인가구를 위한 가이드북 paln B』 언니네트워크, 2014

『혼자 살아가기』 송제숙 지음, 황성원 옮김, 동녘, 2016

논문

이미정 (2017). 비혼여성공동체로 사는 이야기. 여/성이론, (37), 331-340.

유화정 (2015). 한국사회에서 동거 커플, 그리고 그들의 복잡한 젠더 실천과 가족 '하기'. 여/성이론, (33), 84-97.

김순남 (2013). 이성애 결혼/가족 규범을 해체/(재)구성하는 동성애 친밀성. 한국여성학, 29(1), 85-125

전희경 (2014). 마을공동체의 '공동체'성을 질문하다. 페미니즘 연구, 14(1), 75-112

김순남 (2016). 이성애 비혼여성으로 살아가기. 한국여성학, 32(1), 181-217.

팟캐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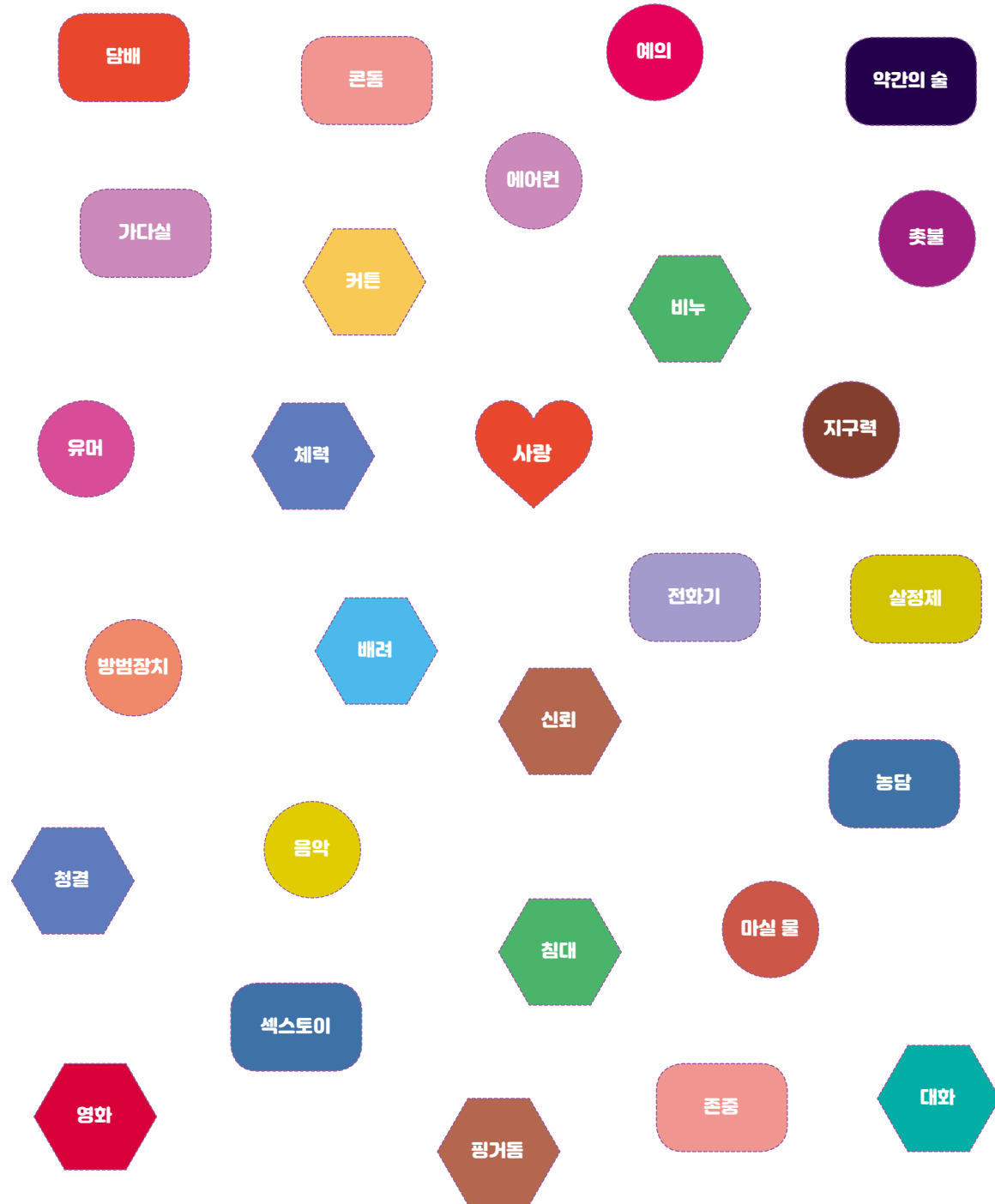
언니네트워크 팟캐스트 '독고다이: 독거를 고민하는 다양한 이야기들' (2018.09.27~2018.10.19)

BIYN 생활동반자법팀 팟캐스트 '우리에게 조금 먼 가족이 필요해' (2018.11.19~)

내가 원하는 섹스 준비물

※ 내가 원하는 섹스를 위해 필요한 것들은 다음과 같을 수 있어요.

준비한 잡지가 작업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면 아래의 단어들을 오려서 워크시트에 붙여보세요!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는 1991년 4월 13일 개소하여, 성폭력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차별과 위계가 만연한 사회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임을 알려온 여성인권운동단체입니다. 여성주의에 기반을 둔 성폭력생존자 지원, 성문화개선운동, 법·정책 모니터링 등을 통해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어가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부설 연구소 올림과 부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열림터가 있습니다.

후원 안내

후원계좌 우리은행 441-04-107528 (예금주 (사)한국성폭력상담소)

문자후원 #2540-1991 (건당 3,000원)

펴낸곳 (사)한국성폭력상담소

펴낸이 이미경

펴낸날 2018년 12월 26일

제작편집 김신아

기획 김신아, 경희, 동글, 롤라, 석영, 선미, 소희, 수빈, 은희, 주주, 제로

디자인 언제나봄그대곁에


주소 서울시 마포구 성지1길 32-42 2층

전화 (상담) 02-338-5801 (사무) 02-338-2890

팩스 02-338-7122

이메일 ksvrc@sisters.or.kr

홈페이지 www.sisters.or.kr

후원  서울특별시 2018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